

# 내년도 월드댄스대회 강릉서 열린다

강릉시가 '2019 국제댄스연맹(IDO) 월드댄스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강릉시는 4월 12일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최명희 시장과 마이클 윈트(Michael Wendt) IDO 회장, IDO 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 월드댄스대회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협약에 따라 IDO 코리아는 운영자로서 국제댄스연맹을 대표해 대회를 진행하고, 강릉시는 개최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2019 월드댄스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 IDO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릉시를 개최지로 확정했다.

내년도 월드댄스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 동안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강릉 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3천500여 명의 댄스인들이 참가해 댄스 월드컵과 월드 캐리비언 댄스 챔피언십 등 2개 월드 타이틀을 놓고 40여 종목의 댄스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내년 행사에서는 또 아시아연맹총회, 국제심사위원회의, 국

제세미나와 함께 갈라쇼,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앞으로도 국제댄스연맹의 월드 댄스대회 같은 각종 마이스(MICE) 산업 관련 대회 유치를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올림픽 개최도시의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릉 아이스아레나 전경

강릉의 봄! 경포해변에서 시작합니다



# 강릉에서 봄바다를 누리는 나만의 특권



강릉 경포해변

경포해변은 봄을 만나는 곳이다. 봄바다의 향기와 따스한 바람의 살랑거림이 낭만 그 자체다. 사파이어 빛깔 바다색이 보석처럼 빛나고, 하얀모래의 부드러움에 나를 유혹하는 듯 하다. 강릉의 경포에서 봄을 마주하세요, 강릉이 당신의 봄을 그리워 합니다.

